



# IMF시대의 농업 및 농어촌개발과 농공기술인의 자세

## Agriculture & Rural Area Development and the Attitude of Agricultural Engineers under IMF Management

● 농업은 우리 생활의 에너지원인 식량을 공급하는 젖줄이고,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뿌리요, 고귀한 마음의 고향이다. 튼튼한 뿌리 없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듯이 복지농어촌 없이는 활기찬 산업화도 시도 안정된 경제개발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MF 한파로 위축되기 쉬운 농업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금후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 및 농어촌상을 효율적으로 이룩함에 필요한 우리 농공기술인의 자세를 정리하여 제시해 본다.



鄭斗禧\*  
Chung, Doo Hi

### 1. 서론

돌이켜보면 지난 40년간 우리가 이룩했던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은 너무도 많은 변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즉 - 농어촌마을 집거형태의 주거 사회를 대도시 중심 정주체계로의 도시화 변혁을, - 농업 중심 원시적 1차산업 경제조직을 상·공업 중심 근대적 2·3차 산업 경제조직으로의 공업화변혁을, - 자급자족 폐쇄경제체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개방화 변혁을, - 유교적 봉건적 가치관의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로의 민주화 변혁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은 우리 나라 국민소득을 1만불 까지 끌어 올려 우리 나라를 국제적으로 12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던 시대적으로 요긴하고 불가피했던 우리 나라 경제개발의 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은 대도시 및 공업 편향적 개발방식으로 연결되어 결국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농업과 농어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말았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농어민은 거역할 수 없는 UR타결과 WTO체결에 따른 값싼 외국산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가격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불어닥친 IMF한파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우리 나라의 농업은 산업으로써의 존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93년부터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고, 농업구조개선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의 확실한 재원 마련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상당한 사업실적이 거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IMF한파를 맞이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의 수출확대 경제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함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농업 및 농어촌개발에 대한 모처럼의 강력한 정부 의지가 변질되고 이에 따라 농업 및 농어촌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 우선 순위가 타 산업에 뒤

\*농어업토목기술사, 우산건설엔지니어링 기술고문.



떨어지기 쉬우므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농공기술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농업은 우리 생활의 에너지원인 식량을 공급하는 젖줄이고, 농어촌은 우리 국민의 뿌리요, 고귀한 마음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정부는 복지농어촌 없이는 활기찬 산업화도시도 안정된 경제개발도 기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농업개발정책을 조화롭게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MF 한파로 위축되기 쉬운 농업 및 농어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금후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 및 농어촌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룩함에 필요한 우리 농공기술인의 자세를 정리하여 제시해 본다.

## 2. 우리 나라 농업 및 농어촌의 현실과 문제점

금후 농업의 개념은 주곡 생산 산업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식품공급산업으로 인식되어지고, 농어촌은 식량생산의 기지로 국한되거나 주변도시와 구분되는 별개의 나머지 지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주공간 그리고 모든 산업의 부지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져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던 우리의 심각한 농업과 농어촌의 현실과 문제점은

- 농업과 타 산업간의 성장격차와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농어민의 상대적 빈곤감 팽배
- 농업노동력 감소에 따른 고임금과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로 인한 농업 경영 자체의 곤란성 증가
- 농어촌의 생활환경 낙후에 의한 농어민의 지속적인 도시유입으로 농어촌지역 국토관리의 곤란성 증가
- 농지감소의 가속화 및 농어촌 부채의 증가로

인한 안정된 농어가로의 자생력 상실

-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농업기반의 미비로 인한 저생산성 및 영농의 불편으로 인한 영농기피 현상의 증가

- 농어촌 자연환경의 가속적 오염과 훼손에 의한 농어촌지역 국토의 황폐화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총화의 저해, 농산물 가격의 앙등, 고용 불안, 도시문제 발생, 국토의 황폐화 등의 정국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은 생산의 장, 생활의 장, 문화의 장 및 녹지의 장으로써의 기대역할을 실현하기에는 아직 풀어 나가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 만일의 경우 IMF 한파 대처에 따른 국가 예산투자의 압박을 빌미로 하여 자칫 정부가 그 개발의 우선 순위를 뒤로하는 우를 범한다면 우리 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기회는 영원히 잃고 말 수도 있다.

## 3. 우리 나라 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

지금까지 시행된 우리 나라 농업개발사업은 시행연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이

- 경지의 집단화 대구획화의 미흡
- 수로조직의 토공화 및 용·배수겸용, 농도의 협소 및 비포장, 지하배수시설의 미도입, 인력관리 위주의 시설물 도입 등 생산기반 현대화정비의 미흡
- 농어촌과의 연대개발 미흡
- 방재·방호시설의 미흡
- 관주도 및 획일화에 의한 지역특성 수용 미흡
- 단위사업별 단독·분산개발에 의한 상호보완성 결여 및 투자효율 저하 등 사업의 기술처리수준, 시행체제, 시행방식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농림어업분야에의 연간 예산 투자액이 국가 총 예산액의 4~5%밖에 안된 과거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업개발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왔음은 간과해서는 안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되풀이해서는 안될 우리 나라 농업개발의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 4. 금후의 바람직한 농업 및 농어촌 상

바람직한 농업 및 농어촌상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써의 농업이며, 조상 전래의 유산을 보전·계승한다는 긍지심 및 도시민이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농어민에게 스스로 우러나오게 하는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어촌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과 농어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금후 농업과 농어촌이 새로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게 하는데, 그것은

- 국민식품의 안정적 공급역할
- 국민경제의 경기순환에 대한 완충역할
- 국토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보전 및 이용역할
- 전통문화의 보전과 현대적 계승역할
- 현대인에 대한 휴식공간의 제공 역할 등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대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농업과 농어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기필코 이룩해야 할 금후의 바람직한 농업과 농어촌상이라 할 수 있다.

#### 5. 농업개발사업과 우리 농공기술인의 자세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개발사업도 그 추진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의 투자효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제 IMF 시대에 살게된 우리 농공기술인은 특히 투자효율이 높게 농업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세무·회계사 등의 경리에게 돈과 재산을, 의사에게 건강과 생명을, 그리고 변호사에게 권리와 법을 맡기면서 우리는 그 수가가 비싸다고 짖는 법이 없다. 그런데도 기술을 기술인에게 맡길 때는 시담(Nego)이니 뭐니 해서 수가가 비싸다며 짖고, 짖이는 것이 오히려 상식으로 되어있다.

기술자(Engineer)는 과학자(Scientist)와는 다른 것이다. 백 번을 잘 하다가도 한번을 실수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도 기술자이며, 해당분야의 기술에 대한 미숙이나 무식으로 초래된 사고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기술자임을 생각할 때 과연 경리나 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가와 무엇이 다른가?

현재 우리 기술인은 다른 전문가와 같은 사회적 대접을 받거나 권리를 갖지도 못하면서 책임만은 무거워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부조리한 사회의 희생양이 되어 온통 국민의 따가운 지탄을 받아 사기가 위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토는 새로이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시대에서만은 마땅히 바뀌어져야 하겠지만, 우리 농공기술인도 다른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사회적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우수한 기술처리능력을 배양해야함은 물론이며, 농업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농업개발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농어촌정비사업의 제 시설이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내구성 있게 설치되게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과감히 적용하므로써 자칫 정부가 비교우위니, 교역기능이니, 국제수지니 하는 등의 단순 논리적 경제기획이론만 가지고 투자효과가 낮다는 빌미로 농업개발사업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접수일 1998. 3. 27)